

日本原子力文化振興財團의 原子力弘報活動

야마모토 미치오키
日本原子力文化振興財團 企劃部長

日本原子力文化振興財團(JAE RO)은 科學技術廳과 通商産業省 산하의 비영리재단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1969년에 설립되었으며, 1988년 이래 JAERO의 기본사업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예산과 인원도 보강되어 왔다.

동 재단의 사업목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선진복지사회와 문화건설이란 관점에서,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교사, 매스미디어 등 여러 단체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를 획득하는데 있다. JAE RO가 연간 수행하는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지원을 받는 사업

反原電활동의 대중운동차원으로

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JAE RO는 科學技術廳의 요청에 따라 원자력의 연구개발에 관여하는 정부기관의 연구진과 기술자들을 연구회나 시민단체협의회에 보내서 직접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기관으로는 日本原子力研究所(JAERI), 動力爐核燃料開發事業團(PNC) 그리고 國立放射線研究所 등이 있다.

동 연구진과 기술자들의 활동은 주로 신문기사를 통하여 일반대중의 지속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 지역여성단체, 서클활동 그리고 기업체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들에서 JAE RO측에 이러한 전문가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JAE RO에서는 반대단체에서도 요청만 한다면 이러한 전문가들을 보내줄 준비가 되어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봉사활동으로 530여회에 걸쳐

총 32,000명의 참가를 유도한 바 있다.

이들 강연회에서 국민들이 선호하는 주제는 「에너지문제의 일환으로서의 원자력」, 「방사선의 특질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 그리고 「환경문제」 등 광범위하다. 전반적으로 에너지와 원자력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보다 일반적인 논의가 대부분이며 기술적 성격을 띤 주제들은 주로 반대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개최된 몇차례의 회의에서는 증기발전기의 구조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원자력사고와 관련한 인적실수(Human Error)에 대하여 질문이 집중되었지만 몇년전 만해도 빈번하게 질타를 받던 체르노빌사고와 관련한 안전성과 식량오염에 대한 논의는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지역여성단체와 교사를 비롯하여 현지 여론주도층과의 원탁회의가 전국 규모로 거듭 개최되고 있다. 일반국민들과의 대화는 원자력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그 개최횟수도 1992년 9월 현재 700회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강연회와 연계하여 가능한한 일반국민들이 원자력발전소를 시찰하도록 권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原電見學도 200여회에 이르고 있다.

또한 JAERO는 通商産業省의 요청에 따라 원자력발전설비 부지 선정에 관여하고 있는 지방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을 위한 원자력세미나도 개최하고 있다.

매스미디어에 대한 협력활동

매스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원자력세미나를 개최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하고, 日本 국내와 해외의 원자력설비의 취재를 위한 협조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원자력과 관련된 시사문제에 대한 뉴스기사의 정확한 해설을 위하여 Press Release(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체르노빌사고가 나자 사고개요를 작성하여 배포한 것과 IAEA의 체르노빌 프로젝트 보고서 요약분을 日語로 번역하여 전국에 걸쳐 매스미디어 종사자들에게 배포한 것이 그것이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원자력정보의 고정적 제공

JAERO는 日本의 대표적인 4개 일간신문에 주 1회에 걸쳐 「Talking about Energy」라는 제하의 고정컬럼을 통하여 원자력과 에너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사히, 마이니찌, 요미우리 그리고 산케이신문이 바로 그것이며, 독자들의 질문은 전화로 직접 대답하고 있다.

학교교육을 위한 협력활동

다음엔 JAERO의 주요활동 중의 하나인 학교교육을 위한 협력활동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중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와 원자력에 관한 세미나를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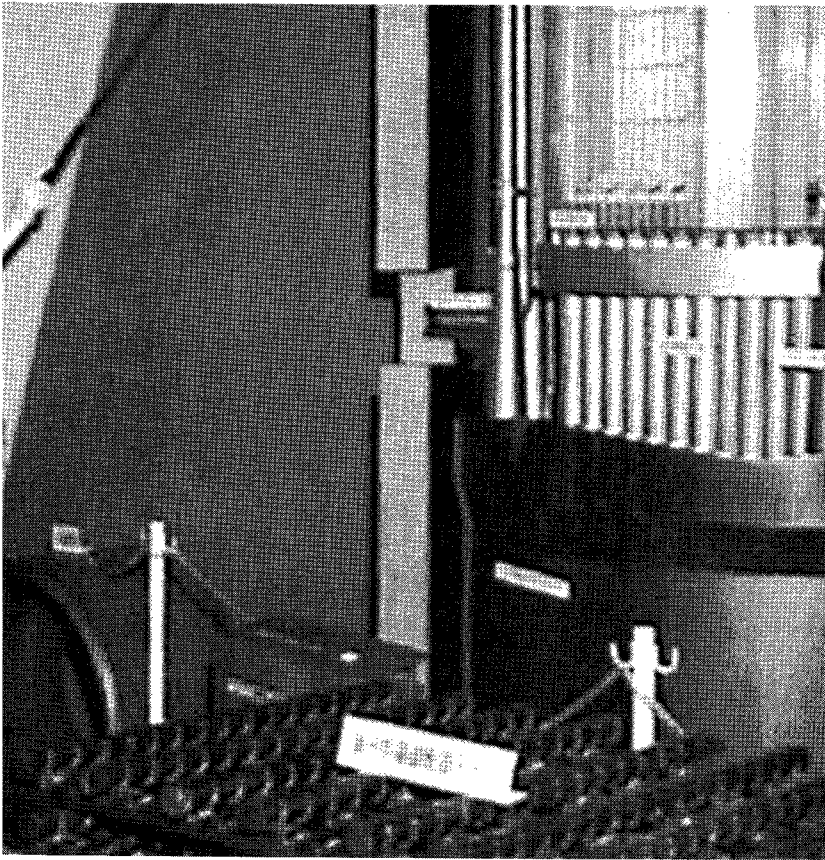
최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文部省, 科學技術廳 그리고 縣교육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교사들에게 에너지와 원자력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러한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깊게 할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따라서 동 세미나는 최신 정보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교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안들을 이해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강사들을 교육기관과 교사들의 연구모임에도 보내고, 원자력발전소로 교사들을 수학여행도 보낸다.

원자력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작문과 수필경시대회를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1만명 이상의 참가신청을 받았다. 입상자들은 科學技術廳 長官으로부터 표창을 받으며 최우수 수상자로 뽑힌 6명의 학생들을 1990년부터 매년 한국으로 견학을 보내고 있다.

1978년부터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방사선에 대하여 깊이 알 수 있도록 방사선 실습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동 세미나를 위하여 JAERO는 방사선 線源, GM 방사선계수관, 계수장치 및 차폐판 등으로 구성된 교육용 장구를 개발했다. 또한 이 세미나는 고등학생들에게 방사선특성에



대하여 이론적 뿐만 아니라 磁性에 의한 β 線 偏向측정, 재질별 β 선과 γ 선의 흡수성, γ 선의 거리逆昇法則 등 실습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에너지와 환경 대안에 교육 Forum 설립

오늘날 학교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은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자연과학으로 공부하게 하고, 우주선 지구의 유한한 자원이란 관점에서 사회교육적으로도 더욱 철저히 대응하여야 한

다. 이러한 발상이 동기가 되어 1990년 7월 JAERO는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교육 Forum을 구성하였다.

동 Forum은 전문가는 물론 에너지와 환경문제에 대해 특별히 교육적 지식을 갖춘 여타 사람들의 참석을 유도하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조사를 위한 장소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Forum의 사명은 에너지교육을 위하여 권장할 만한 방향을 찾아내고 그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있다.

1992년 7월, 이 Forum에서는 에너지와 환경교육을 위한 건의를 모아서 文部省, 전국의 교육위원회

그리고 정치 및 사업계에 제출했다. 이들 건의를 통하여 이 Forum은 에너지와 환경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다채롭게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상시킬 것을 요구했다. Forum은 현재 학교에 도입시킬 목적으로 에너지와 환경에 관한 표본 교과과정의 초안을 잡고 있다. 동 Forum의 연구조사결과는 모든 관련 조직체나 협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제정보프로그램의 촉진

원자력에 관한 홍보활동은 정부, 전력회사와 그밖의 산업체 그리고 원자력 연구개발을 위한 협회들간의 협조를 통해 각국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무대에서는 IAEA 같은 국제기관이 원자력정보프로그램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오늘날 같은 고도의 정보지향 사회에서는 책임 있는 기구들이 바른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일에 대한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JAERO는 원자력에 대한 PA 활동의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1992년 3월에 설립된 한국원자력문화재단과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동 협정에 기초하여 JAERO는 연구 시절단의 교환과 함께 문헌과 정보교환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원자력 PA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정보망의 조속한 구축을 고대하고 있다.■